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 레 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 예배부름 인 도 자
※ 예배기원 인 도 자
※ 경배찬송 25장(면류관 벗어서)
※ 교 독 문 6(시편10편)
※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1(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배기도 1부 한국회집사 2부 강항구장로
응 답 송 찬 양 대
이달의찬양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갈 이
*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 이 땅위에 사랑과 온유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태복음 5:13-16
찬 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 최세열목사
기 도 설 교 자
◆응답하는 예배◆	
찬 송 510장(하나님이 진리등대)
봉 헌 (9구역)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 은 이
※ 찬 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 축 도 담임목사
※ 축 복 송 찬 양 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 도 / 담임목사	찬 양 / 다 함 계	인 도 / 최세열목사	찬 양 / 다 함 계	새벽 5:00	인도 : 담임목사
기 도 / 선우명환집사	기 도 / 한마음기도	기 도 / 한마음기도	기 도 / 한마음기도	요한복음서 강해	
분 문 / 사도행전20:28	분 문 / 상상12:19-25	분 문 / 상상12:19-25	분 문 / 상상12:19-25	금요기도회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말 씀 / 최세열목사	오후9시 소예배배설	
탁월한 집사/2과 교회에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더욱더 기도합시다”	“더욱더 기도합시다”	중보기도, 개인기도	
집사직분자의 사역은 무엇인가?	추기요문 / 다같이	추기요문 / 다같이	추기요문 / 다같이	합심기도	
축 도 / 최세열목사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혜경		다음주	1부	김숙희집사
		김기수 노대성 김운수		기도	2부	마리아회
	헌금위원	1월	정정희 정숙자 김병국 천사라	다음주	1부	말 은 이
		2월	정선례 방옥남 임병호 홍강의	성경봉독	2부	마리아회
식당봉사	금주	사라희	다음주	마르다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노재의집사
헌신찬양	금주	9 구역		다음주	마리아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 마태복음 5:13-16

서양에는 ‘노블레스-오블리츠(noblesse oblige)’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귀족의 의무를 뜻하는 말로서 ‘자기 자신이상으로 남을 사랑하는 힘과 자기 자신의 이익 이상의 것을 위해 행동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의무’의 정신과 통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거룩한 의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빌2:5-8)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의무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참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오해 해 왔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훈련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로 오해요, 속임수이며, 심각한 의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본질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닌 우리를 향해 이미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2:9절에서도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 않고 이미 무엇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2.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불순물에 섞여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버림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금만이 짜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로 살아간다는 것은, 순수함과 순결함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레2:13, 민18:19). 서로 신뢰하지 못함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세상에 순수함과 순결함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합니다. 맛은 곧 의미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보람도 가치도 상실합니다. 맛을 잃은 세상을 향해 삶의 의미를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하려면 부서지고, 녹아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요12:24), 희생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3.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빛은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드러내는 빛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안내하는 기능입니다. 등대의 빛이 항해하는 배들을 안내하듯이 성도들은 참된 인생의 길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바르게 보고 고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어두운 밤에는 숨겨져 있지만 날이 밝으면 흉하고 추한모습,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추함과 흉함과 더러운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바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말로써가 아니라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등경 위의 등잔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말 아래 둔 등잔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경위의 등잔이 되라고 하신 것은 당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삶의 모든 순간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현 후 여섯째 주(2월 13일)

제7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마태복음 16장 21-28절)

(함께 읽을 말씀 : 잠언 3장 1-12절, 골로새서 1장 24-29절)

1. 배우며 따라가는 신앙 :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며 그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 뜻을 이루는 자아실현도 아닙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니이다"라고 감격스럽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답을 인정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잠깐 사이에 상상의 나라를 꿰어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가 세운 새 나라의 관리가 되는 꿈. 부귀영화를 누리는 환상들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 후 제 삼일에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마16:21). 이것은 분명 제자들이 마음속에 그리는 환상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2. 그리스도를 가로막다 :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 하리이다." 하면서 대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면으로 마주 보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곧 사람이 팔을 벌리고 길을 막아서는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고백 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 자신도 견게 해달라고 했던 믿음과 열심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주저 없이 사탄으로 몰아세우며 "내 뒤로 물러 가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자리는 예수님의 뒤쪽이지 앞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방향을 베드로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3. 우리의 위치 :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뒤쪽에 자기 자리임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배움이요 배움은 따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다면, 우리야말로 언제든지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불리는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면서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움직이려 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는 자아실현 신앙, 성공주의 신앙을 추구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앞세운 적은 없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 세상에서 배운 것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모방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모방하느라 분주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뒤로 자리를 옮겨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예배 후에 각 신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2. 다음 주일은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마리아회가 함께 합니다.
3. 해든솔 선교활동이 14일(토)에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9시까지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4. 2015년 교회수첩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잘못 기록된 주소나 전화번호, 각 신도회 조직 등을 오늘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의 행사일정

1. 평신도 참여예배 - 마리아회 / 2월 15일
2. 작정밤기도회 - 2월 23일 -27일 오후8시 / 종합교육실
3. 해든솔선교활동 - 2월 14일 오전 9시
4. 안수집사모임 - 2월 1일 오후1시 / 당회실
5. 권사회기도회 - 2월 15일 오후1시30분 / 교회 본당

향기로운 예물과 봉사

- 심 일 조 : 강국환 김용선 이광주 홍혜미 이드림 이루다 최지현 박지영 강동균 김현아 이경희 나금옥 조준순
- 감사헌금 : 강항구 류종란 임병호 김경희 임빛나 임한규 노대성 김동현 양희임 김지환 김병진 김옥길 여순애 이은구 박홍만 정정희 강소윤 송영임 김혜경 무명2 (일천번제) 김동현 (심방) 심문자 이종춘 윤승호 최경선 김인순 박치국 이영란
- 건축헌금 : (다음 주에 함께 보고 합니다)
- 비전씨앗 : 배영인 강동균 김현아 강항구 류종란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이현옥	교회	4	15,000		천사라	7	강은순	이영선	교회	10	14,000	50	한국회
2	정정희	신혜영	교회	3	13,000	14	공영순	8	김순님	오복실	교회	5	23,000	30	허 울
3	이준호	함경숙	교회	5	17,000	100	이유자	9	김인순	이영란	교회	4	11,000		한미경
4	김기희		교회	3	12,000	45	최경선	10	정영분	노순영	교회	4	12,000		
5	이문순	원혜경	교회	7	26,000	40	윤종원						52	184,000	279
6	류종란	김애자	교회	7	41,000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전 도 실

세상의 소금과 빛

이탈리아 아동문학가 까를로 콜로디의 ‘피노키오 모험’(1882)은 동화가 영화화되어 전 세계에 알려진 세계의 동화입니다. ‘피노키오의 모험’에는 나무 인형 피노키오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피노키오가 벽난로 옆에 다리를 뻗고 불길에 바짝 다가앉아 있었을 때, 고통에 대한 무감각은 그의 가장 큰 취약점이 되어 불타 없어지게 할 뻔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피노키오처럼 세상의 악과 오염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 최악에 무감각해져 버린 그리스도인은 거짓이 많아져서 점점 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봐도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같이 악을 저질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으로 변질되었고, 밝음을 잃은 빛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다시 세상의 소금이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크게 열어야 합니다.

빛 가운데 있는 이유

아프리카에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던 한 선교사가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죽었다. 이 선교사의 무덤에 그의 전도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비문을 썼다.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되기 위해선 자신을 스스로 태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햇빛은 더러워지지 않는다

로마의 시인 터툴리언은 "햇빛은 하수구까지 고르게 비추어 주어도 햇빛 자신은 더러워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훌륭한 사람은 진흙 속에 있는 진주와 같아서 주위 환경에 오염되지 않으며 또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5-6

2015.2.8.

주현절 다섯째주일 / 신학교육주일

참 진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계명을 기억하오니
여기 모인 저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소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선포하신 주님,
저희의 어리석은 귀를 열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게 하소서.

갖가지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성령님의 충만한 지혜로 깨닫게 하시어
좌우에 날이 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세상의 영킨 실타래를 풀어내게 하소서.

부귀영화를 쫓는 헛된 세상의 지식에 매여서
영원한 진리를 외면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를 전하는 이는 열정으로 목상하고,
배우는 이는 겸손하게 받아들여,
학문과 경건의 힘찬 날갯짓으로
오직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간직하고
땅 끝 구석까지 전하겠노라 결단하오니,
주님, 저희를 보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환영

우리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게 된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 이석영집사님: 매탄동 원천성일 아파트 103동 905호(에스더회)
- * 송영임성도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52-20(마르다회)

담임목사 : 최세일(imcsr@hanmail.net)

시무장로 : 박홍만 광항구

교육담당:이광주목사, 강은순전도사 지휘:김영란 반주:인진영 최지현